

Global Trade Report

2020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 2020 수출전망 / 2

II .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 5

5	1. 북미
8	2. 중국
11	3. EU
14	4. 일본
17	5. ASEAN·대양주
22	6. 인도
25	7. 중동
28	8. 중남미
32	9. CIS
35	10. 아프리카

요 약

□ (총괄)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3% 가량 증가한 5,500억 달러 상회 전망

-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도 기저효과, ①주력 산업 품목(반도체, 조선, 자동차)과 ②新성장 품목(이차전지, 바이오, 화장품 등) 수출 증가로 약 3% 달성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억 달러, %) >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737	15.8	6,049	5.4	5,402	-10.7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주재상사 등 789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일본(△1.4) 제외, 북미, 중국, 신시장(신남방, 신북방)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기대

- (선진·주력시장) 중국은 소폭 회복, 유럽·북미·아세안 등은 확대

북미(4.2%)	금리인하, 견고한 고용 및 내수시장
중국(2.1%)	소비중심의 경제성장 도모, 미·중 통상 분쟁 장기화, 부실 부채
EU(5.7%)	견고한 내수시장, 전기차 보조금, 환경규제 본격 강화, 경기 부양 정책 추진
일본(-1.4%)	소비세 인상 여파로 소비 둔화, 도쿄올림픽 건설 수요 일단락
아세안(3.5%)	제조업·신산업 육성정책, 인프라 구축·투자 확대

- (신흥시장) 신흥시장 경기회복을 통한 수출 증가 전망

대양주(1.9%)	내수침체 극복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인도(8.1%)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 활성화
중동(3.1%)	제조업 육성, 신성장 산업 투자,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남미(1.1%)	브라질, 멕시코 가계소비 회복, 경기부양 재정 확대
CIS(2.9%)	수입대체산업(자동차, 제약, 의료기기 등 20개 분야) 육성정책 → 아시아 협력 확대
아프리카(6.4%)	중산층 중심의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 확충 지속

< KOTRA, '20년 지역별 수출 증가율 전망 (%) >

북미	중국	EU	일본	ASEAN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4.2	2.1	5.7	△1.4	3.5	1.9	8.1	3.1	1.1	2.9	6.4

주: 기타지역(대만, 노르웨이, 마셜제도 등) 제외

2020 수출 전망

- (총괄)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3% 가량 증가한 5,500억 달러 상회 전망
 - 우리나라 수출은 '18년 6,000억 달러 최초 달성 후 '19년 마이너스 성장률 ($\Delta 10.7\%$)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였으나, '20년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
 - 주력 산업 품목(반도체, 조선, 자동차)과 新성장 품목(바이오헬스, 이차 전지, 화장품 등) 수요 증가가 '20년 수출 확대를 이끌어갈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2017년		2018년		2019년(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737	15.8	6,049	5.4	5,402	-10.7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주재상사 등 789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주요 기관들은 '20년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을 전년 대비 상승한 2.7%~3.3%로 전망
 - * IMF('19.10월): ('19e)0.9% → ('20e)3.3%, WTO('19.10월): ('19e)1.2% → ('20e)2.7%, OECD('19.11월, 상품+서비스): ('19e)1.2% → ('20e)1.6%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상승한 2.5%~3.5%로 전망
- (지역별) 일본($\Delta 1.4$) 제외, 북미, 중국, 신시장(신남방, 신북방)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기대
 - (선진·주력시장) EU·북미·아세안 등은 확대, 중국은 소폭 회복 전망
 - (북미) 금리인하, 견고한 고용 및 내수시장으로 수출은 4.2% 증가 전망
 - (중국) 부실부채,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가 우려되나, 소비중심의 경제 성장 도모로 수출은 21% 소폭 증가 예상
 - (EU) 견고한 내수시장, 경기 부양 정책 추진으로 수출은 2.4% 증가 전망
 - (일본) 소비 둔화, 올림픽 건설 수요 일단락으로 수출 $\Delta 1.4\%$ 하락 전망
 - (ASEAN) 제조업·신산업 육성정책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관련 부품·기계 수입 증가로 연계, 對아세안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 전망

- (신흥시장) 경기회복으로 신흥시장 수출 증가 전망
 - (대양주) 내수침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 전망
 - (인도) 기업친화적 정부 정책,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수출은 **8.1% 증가** 전망
 - (중동) 제조업 육성, 신성장 산업 투자,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3.1% 수출 증가율 증가** 전망
 - (중남미) 브라질·멕시코 가계소비 회복, 경기부양 재정 확대 정책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 전망
 - (CIS) 수입대체산업(자동차, 제약, 의료기기 등 20개 분야) 육성정책으로 아시아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 수출은 **2.9% 증가** 전망
 - (아프리카) 중산층 중심의 민간소비 증가, 인프라 확충 지속으로 수출은 **6.4% 증가** 전망

< 2020년 지역별 수출 전망 >

(단위: 억 달러, %)

지역	2018년	2019년(e)		2020년(F)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국	1,621	1,355	-16.4	1,384	2.1
아세안	1,001	951	-5	984	3.5
북미	785	792	0.9	825	4.2
EU	577	535	-7.2	566	5.7
일본	305	286	-6.3	282	-1.4
중남미	278	263	-5.5	266	1.1
중동	217	177	-18.6	182	3.1
인도	156	153	-2.1	165	8.1
대양주	142	118	-16.8	120	1.9
CIS	108	135	24.8	139	2.9
아프리카	64	64	-0.3	68	6.4

주: 기타지역(대만, 노르웨이, 마셜제도 등) 제외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789개 정보원 의견 종합)



< 2020년 지역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20년 수출 전망											
	종합	북미	중국	EU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지역별 종합												
일반기계 (71,72,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DP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 기기(812)												
가전 (82)												
컴퓨터 (813)												
섬유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대폭 증가(10% 이상)
 소폭 증가(3~10%)
 현행 유지(0~3%)
 소폭 하락(0~△10%)
 대폭 하락(△10% 이상)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789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북미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4.2%	2019년	792억(14.7%)
		2020년(F)	825억(14.8%)
재정적자로 확정적 재정정책 운용은 불투명하나, 견조한 고용 및 내수 경기로 완만한 경제 성장률 예상돼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 호조품목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섬유류 ▶ 부진품목 자동차부품			

가. 2020년 시장여건

□ '20년 미국 2.1%, 캐나다 1.8%의 경제성장률 지속 전망

- (미국) 불확실성 속 견조한 고용 및 내수로 2.1%(전년 대비△0.3%p) 성장
 - 저금리, 낮은 실업률, 가처분소득 증가에 힘입은 견조한 소비지출
 - * 美 정책금리 : (19.9월) 1.75~2.0 → (10월) 1.5~1.75 → (20년) 1.5%
 - * 개인소비지출 : (19.1Q)1.1% → (2Q)4.6% → (3Q)2.9% → (4Q)2.0%
 - '20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 추진
 - 美·中 미니딜(mini-deal) 타결 이후에도 지속 전개될 첨단기술 패권 전쟁이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캐나다) 소비, 물가, 투자 안정세로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 가처분소득 증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호조 요인이나,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중국과의 외교 갈등 장기화로 수출 및 관광 산업 악화 우려
 - * 캐나다 對中 수출 증감률(%) : ('17년)△3.0 → ('18년)40.2 → ('19.9월)△26.6
 - * '19.9월 중국 정부의 캐나다 여행경보 발령으로 관광객, 유학생 수 급감

< 북미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2020(F)
미국	2.5	2.9	1.6	2.4	2.9	2.4	2.1
캐나다	2.9	0.7	1.1	3.0	1.9	1.5	1.8

* 자료: IMF('19.10월)

나. 2020년 수출환경

□ (미국)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 통상리스크 상존

- 통상분쟁 장기화 및 '20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
 - 美中 간 1단계 무역합의(미국의 관세율 인하 및 추가 관세 부과 철회,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 등 포함)에 서명 예정이나, 완전한 타결 가능성은 장기화 될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대선을 위해 통상·경제 부분에서 美우선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 시, 정치·통상 리스크 및 정책 불확실성 확대
- 양호한 경제 성장으로 교역 규모 확대 예상되나, 제조업 및 고정투자 부진으로 인해 설비 수요는 감소 전망
 - * 美 상품 수입액 전망(EIU) : ('19)2조5,850억 달러 → ('20)2조 6,400억 달러
 - * 총 고정투자 증가율(전년 대비, %) : ('19)1.7% → ('20)△0.6%
- 정책 변화에 따라 첨단 산업, IT, 에너지 분야 등 진출 기회 확대 예상
 -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등에 따른 신산업 시장 급성장
 - * 미래차 적용 가능한 센서, 대쉬캠, 이차전지, 의료바이오, 의료사물 인터넷 등

□ (캐나다) 무역 분쟁, 경제공동체와의 FTA 적극 추진에 따른 교역 구조 변화

- 저가 철강 및 태양광 제품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한 중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 높은 對美 교역의존도 탈피를 위해 ASEAN, 메르코수르 등 경제공동체와의 FTA 적극 추진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 이상)	○ 美 에너지 개발 붐, LNG 캐나다 프로젝트로 신규 LNG 수송 선박 수요 확대 예상 * LNG 캐나다 프로젝트 : 키티마트항 LNG 수출터미널 건설(C\$400억)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미중 무역분쟁 지속으로 전후방 산업 여파 우려되나, 美 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및 캐나다 한국산 농기계 수입수요 확대로 수출 소폭 증가 예상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현지 생산 증가 추세이나, 자동차 평균 가격 상승 및 한국산 신차 판매 호조로 수출 증가 예상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5G 통신망 확대('22년 까지 전국 단위 서비스 시행 목표)에 따라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북미 지역 5G 무선통신 가입자 1,800만 명 예상 (Ericsson)
가전 (82)	소폭증가 (3~10%)	○ 美 스마트 가전 수요 확대 추세이나,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가 수출 증가폭을 제한할 전망

□ (현상유지)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 유지 (0~3%)	○ LCD TV, 데스크탑 모니터, 모바일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감소하나, 자동차 모니터, 스마트워치, OLED TV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 (IHS Markit)
컴퓨터 (813)	현상 유지 (0~3%)	○ '20.1월 Windows7 지원 종료로 데스크탑 수요 증가 (Digital Trends) ○ 현지 기업(Apple, Asus등)의 높은 가격·기술 경쟁력으로 한국산 컴퓨터 수요는 현상 유지 전망

□ (소폭감소)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742)	소폭감소 (0~-10%)	○ 미중 무역분쟁, USMCA 타결로 인해 OEM 및 공급처 선정 시 현지 기업 선호

 중 국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2.1%	2019년	1,355억(25.1%)
		2020년(F)	1,384억(24.8%)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도모 속에 무역 분쟁 장기화, 부동산 경기부양책 한계 등으로 경기 성장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수출은 소폭 증가 기대			
▶ 호조품목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 부진품목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섬유류, 철강제품, 석유화학, 석유제품			

가. 2020년 시장여건

□ 경기부양책으로 '20년 경제성장률은 5.7%~6.2% 전망

* 중국 '20년 GDP 전망 : IMF 5.8%, OECD 5.7%, World Bank 6.2%

- (정책) 증치세 및 기준율 인하에 따른 소비중심 경제구조 도모
 - 소득세 감세, 소비진작 정책, 서비스 시장 확대, 디지털 경제 발전 등 내수시장 육성정책 지속 추진

* 통상분쟁 장기화, 산업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 상존

- (투자) 대외개방(서비스+제조업)으로 대내외 투자 확대 전망
 - 첨단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버블상태로 인해 관련 부양책은 시행이 어려울 전망

* 첨단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자 : 전체 FDI의 28.8% 비중 차지

- (물가) CPI 상승, PPI 하락, 과도한 기업부채*로 경기둔화 우려

* GDP대비 중국 부채 비중('18.12월) : 정부부채 49.8%, 기업부채 152%, 가계부채 52.6%

- (CPI) 돼지고기 가격 폭등(+101.3%) 및 원유가격 반등으로 3.8%* 증가

* '19.10월 기준, 7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

- (PPI) 내수부진, 생산가격 하락으로 △0.7% 전망(귀타이권안)

나. 2020년 수출환경

□ 수입 확대 및 대외 개방 지속 추진

- 수입 잠정관세·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로 개방형 경제 체제 시행
 - * '20.1.1부터 약 850여개 품목(일부 의약품·식품·IT제품 포함)에 수입 잠정세율 적용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외상투자법 시행 등 대외개방 정책으로 교역 확대 전망
 - * 新외상투자법 발효('20년)로 외자기업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

□ 산업·통상·도시 정책 영향에 따른 新산업·新시장 성장

-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산업 간 융합 시장 성장
 - 제조업 스마트화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해외 우수기술 적극 도입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ICT, 서비스 분야 성장 촉진
 - 신산업(5G, 스마트시티), 고부가가치 산업(친환경, 콘텐츠, 의료바이오) 협력 수요 증대
- 생애주기 연장에 따른 바이오헬스(실버·엔젤) 시장 확대
 - * '20년 실버시장 1천조 원, 영유아시장 500조 원 규모 예상

□ 전자상거래·유통채널 고도화로 시장 성장 지속

- 내수 소비시장, 주력 소비세대 공략을 위한 플랫폼 유통시장 사업 (O2O, 왕홍) 및 프리미엄 소비재·서비스 시장 확대

□ 中 지방정부 추진 프로젝트 다대

- (서부 권역) 내륙개발 프로젝트(일대일로, 스마트시티 등) 참여로 내수 소비시장 진출 가속화
- (동북 권역) 中동북개발과 韓신북방정책 연계, 국내기업 진출기반 강화
 - * 동북 거점(하얼빈, 장춘) 활용한 농업·스마트팜 등 新유망산업 지원
- (발해만 권역) 산동성·정저우 지방정부와의 물류·통관 서비스 분야 협력 추진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및 LNG 선박 기자재(탈황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수요 증가 전망 ○ 다렌 중심으로 연해지역 조선 중심지 수요 확대 추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설비 수요 증가 * 中 인프라 투자용 채권발행 규모 : ('19)2조 1천억 위안 → ('20)3조 위안(515조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차·수소차 수요 확대로 수출 회복 기대되나, 로컬기업 기술력 강화로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신망 구축 확대로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 추세 ○ S전자의 폴더블폰 현지 반응 좋으며, 그 외 한국 제품은 동남아 공장 생산품으로 한국 수출 영향 미미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단가 회복 전망 * Dram 수요증가율: ('20.1Q)13%→(2Q)17%→(3Q)23%→(4Q)21% ○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 및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으로 핵심제품 수출 확대 전망

□ (소폭감소) 석유제품,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정유구조 고도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구도 심화 ○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전망 ○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고품질 석유제품 수요가 긍정요인
섬유류 (4)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단가 하락, 로컬기업의 저렴한 원가로 인한 낮은 경쟁력 ○ 한국 기업의 동남아 이전 증가로 수출 감소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증축, OLED 디스플레이 수출 상승으로 초과 공급 및 가격 하락 추이 지속 전망
가전 (82)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전시장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나, 중국 현지 브랜드의 높은 가성비, 기술력(AI, IoT 접목)으로 한국 제품 경쟁력 하락

 E U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5.7%	2019년	535억(9.9%)
독일, 영국 중심의 경기하향흐름이 다른 유럽국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정책 재개로 수출은 소폭 개선될 전망		2020년(F)	566억(10.2%)
			
▶ 호조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철강, 석유화학 등 ▶ 부진품목 평판디스플레이			

가. 2020년 시장여건

□ 주요국 Policy Mix(재정 ↑+금리 ↓)로 1.6% 성장

- (시장) 對美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 압력 가중 전망
 - 통상분쟁 지속 시, 제조업 수출 비중 높은 주요국(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의 하방 압력 가중 전망
 - 유로존 제조업 PMI 45.9p 기록('19.10월)
 - * 9개월 연속 기준치(50) 하회, 설비 가동률 전년 동기 대비 △1.8% ('19.3Q)
- (내수) 고용환경 및 소득 수준 개선이 소비를 견인할 전망
 - 낮은 실업률, 민간 소비 증가로 견고한 내수 시장 기대
 - * 실업률(%) : ('15) 9.4 → ('16) 8.6 → ('17) 7.6 → ('18) 6.8 → ('19) 6.3
 - * '20 소비증가율(%) : (서유럽) 독일1.6, 프랑스1.7, 네덜란드1.6, (동유럽) 폴란드4.2, 헝가리3.8
- (정책) ECB는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양적완화정책 재개
 - 사상 최저 수준의 수신금리 인하 단행 및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재가동으로 '20년 기업 투자 및 민간 소비 증가 기대
 - * 월 2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 완화적 통화정책 재개 ('19.11월부)
 - * 기준금리 : 0%(동결), 대출금리 : 0.25%(동결), 수신금리 : △0.5%(0.1%p 인하)

< 유럽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2020(F)
EU	1.9	2.5	2.1	2.8	2.2	1.5	1.6
유로존	1.4	2.4	2.4	2.1	1.5	1.3	1.5

* 자료: IMF('19.10월)

나. 2020년 수출환경

□ ECB 및 주요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은 설비 투자 증가 전망

- 주요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확대 재정 정책 시행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라 유로존 설비투자 1.5% 증가 전망

□ 선박,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산업 호황이 수출 견인할 전망

- 한국의 對EU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 반도체의 회복 조짐 관측
 - (선박) 국제 해사기구 환경 규제 발효('20.1.1) 이후, 영국·그리스·스페인 선주사 중심으로 점진적 발주 증가 추세
 - * 특히, 오염수 저감장치 수입수요 확대 지속
 - (반도체) 낸드플래시 단가 회복, D램의 '20년 상반기 반등세 예상
 - * 전체 DRAM 수요증가율(추정) : ('19.4Q)16%→('20.1Q)13%→(2Q)17%→(3Q)23%→(4Q)21%

□ ECB 통화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 기조 지속 예상

- ECB의 확장 통화정책 재개 선언('19.9.12) 이후, 유로화 가치 급락('17.5월 이후 20년만의 급락)에 따른 한국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FTA 체결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

- 싱가포르, 베트남, 메르코수르 등 '20년 내 발효 예상되는 FTA 협정이 다수이며, 한-EU FTA 선점 효과 상쇄로 경합 품목 경쟁 심화 예상
 - * 경합품목 : (베트남) 전자기기, 무선통신기기, 전자집적회로
(싱가포르) 전자집적회로, 석유제품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반도체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 이상)	○ 공급 기업의 생산 감축 및 낸드플래시·D램 단가 회복으로 수출 대폭 증가 예상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전기차 배터리·건설·전자 등 한국 생산 시설 투자진출 증가에 따른 생산 설비 수요 확대 예상 ○ 新 EU집행위(19.11월 출범) 정책(건물 에너지 효율 증대 위한 재건산업 등)에 따른 기계류 동반 성장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 전망 및 한국산 전기차 모델(Niro, Kona 등) 수요 증가 ○ 다수의 신차모델(하이브리드 등) 출시 효과 기대
석유화학 (21)	소폭증가 (3~10%)	○ 고부가·고품질 품목 수요 증가로 한국산 고급 합성수지, 에틸렌 프로펠린 고무, SBR 등 품목 수출 호조 예상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20년 기점으로 주요국 5G도입 본격화가 기대되어 관련 기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화웨이 등 중국 제품과의 경쟁으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
선박류 (746)	소폭증가 (3~10%)	○ LNG 선박 프로젝트 신규 발주가 기대되며, 선박의 보수유지 기자재와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영국, 그리스,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중선의 점진적 발주 기대

□ (현상유지) 섬유류,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현상 유지 (0~3%)	○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섬유·원단 수요 지속 감소 중이나, 경기 회복 시 폴리에스테르·장섬유 및 단섬유 중심의 수출 회복 전망
자동차부품 (742)	현상 유지 (0~3%)	○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자동차부품 동반 성장 예상되나,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재편 및 다수 완성차 업계의 내연차 생산물량 감축으로 부품 수출 제한될 전망

□ (소폭감소)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 주요 부속품(모듈 등)의 현지생산 전환, 중국 제품과의 경쟁 과열로 수출 감소 예상 ○ 다만, OLED/QLED 등 고급사양 제품 및 자동차 패널 등 신산업 분야 수입수요는 확대 전망

 일본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1.4%	2019년	286억(5.3%)
		2020년(F)	282억(5.1%)
소비세율 인상 여파, 엔화강세 및 대외여건 악화,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1.4% 감소할 전망			
▶ 호조품목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 부진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학, 석유제품			

가. 2020년 시장여건

□ 개인소득 둔화로 '20년 경제성장률 0.5%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IMF, '19.10월): ('18)0.8%→('19)0.9%→('20)0.5%

- (소비)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다, '14년 소비세 인상대비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 * ('14.4월) 소비세 1차 인상 5%→8%, ('19.10월) 2차 인상 8%→10%
 - 1차 소비세 인상 당시 소비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 발생
 - 2차 소비세 인상 시에는 필수품목 경감세율 도입 등으로 개인소비에 주는 타격이 '14년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도쿄 올림픽으로 관광객들의 소비가 증가해 소비세율 인상 충격이 완화될 전망
- (정책) 확장적 정부지출 기조유지, 인프라 등 공공투자로 수요 견인
 - 국토 인프라 강화(방재대책), 도쿄올림픽 건설 수요 중심으로 공공투자가 전망되나 대규모 수요는 일단락
- (투자)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기계투자 중심의 투자 감소 예상되나, 기업수익 개선 및 금융완화정책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나. 2020년 수출환경

□ 한일 관계 경색 등 교역환경 불확실성

-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기업의 신규 거래 획득 기회가 줄어 한일 간 비즈니스 어려울 전망

□ 엔화 강세로 인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 미중 통상분쟁 지속 등 세계경제 성장세 우려로, 안전자산인 엔화로 투자 자금이 유입될 전망
 - * 엔/달러 환율 : ('20년) 98 ~ 112엔
-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 채산성 악화될 전망이나, 엔고로 인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 다대

- 차세대 성장 동력 인식으로 신산업 시장 확대
 - 차세대 자동차 관련 기술혁신* 및 생산·수요 확대, 전력시장 개편 및 원가 절감 경쟁 등의 산업구조 변화 예상
 - * CASE化 : Connected, Autonomous, Shared/Service, Electric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일본판(Society 5.0*) 4차 산업혁명 추진
 - ICT 접목 스마트 의료기기 및 원격의료서비스 기술 시장 확대 전망
 - * Society 5.0 :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 생산 가능 인구 59.5%, 65세 이상 인구 28.5% 차지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정책 추진
 -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유력 피칭 이벤트, 정부·지자체의 창업촉진 지원 정책 추진
 - * 스타트업 자금 조달액 : ('13) 829억 엔 → ('18년) 3,880억 엔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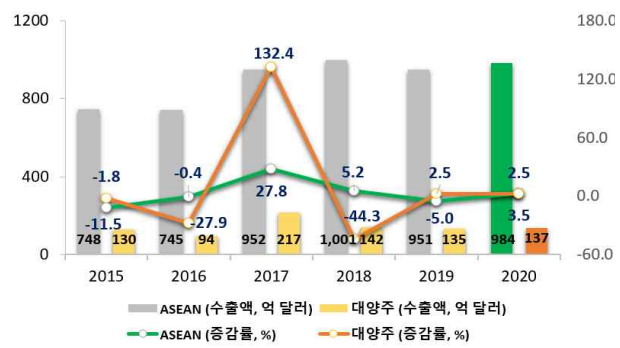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증가 (3~10%)	○ 액정 모니터의 대형화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으로 '18년 1억 7천만장 → '23년 2억 198만장 규모로 확대 전망 (야노경제연구소)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日 반도체 시장 규모는 '19년 -10% → '20년 +3.9% (4조 1,279억 엔)로 성장 전망(WSTS) ○ '19년 기저효과 및 반도체 단가 상승으로 플러스 성장 기대
가전 (82)	소폭증가 (3~10%)	○ 2020 도쿄올림픽 특수에 따른 백색가전(TV, 에어컨 등) 수요 증가 추세(JEMA) ○ 스마트도어록, LED, OLED TV, 스타일러 수입수요 확대 기대

□ (현상유지) 철강, 섬유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 (61)	현상 유지 (0~3%)	○ 경기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안정적인 공급 구조로 수출 유지 전망(포스코인터네셔널재팬)
섬유류 (4)	현상 유지 (0~3%)	○ 2020 도쿄올림픽으로 스포츠웨어 수요는 확대되나, 제한적인 수준으로 예상 ○ 섬유 단가 하락 전망

□ (소폭감소)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감소 (0~-10%)	○ 플랜트 건설 및 기존 시설 점검 등에 따른 수요 증가 예상되나, 한일관계 악화로 신규 거래가 어려울 전망
석유화학 (21)	소폭감소 (0~-10%)	○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로 석유화학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무역분쟁 등 불안요소 고조로 對韓 수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히구치 상사)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 환경문제, 에너지 삭감 이슈 지속으로 수입수요 감소 추세(경제산업성)

 ASEAN 대양주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3.5%(ASEAN) 1.9%(대양주)	ASEAN 대양주	2019년 951억(17.6%) 2020년(F) 984억(17.7%) 2019년 135억(2.5%) 2020년(F) 137억(2.5%)
민간 소비 증가, 산업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통상협력 확대 등으로 동남아대양주 지역으로의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 호조품목 (ASEAN)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철강제품, 선박류 (대양주)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반도체, 가전, 컴퓨터, 석유류, 석유제품		▶ 부진품목 (ASEAN) 석유제품 (대양주)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제품, 석유화학	

가. 2020년 시장여건

□ ASEAN과 대양주 경제성장률, '18년 이래 둔화세 지속

- (ASEAN)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국제유가 등락 등 글로벌 불안 요인 속, 시장통합 및 역내발전으로 ASEAN 경제 4.7% 성장 전망
- (대양주) 높은 중국 의존도, 소비 위축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정책 실시로, 호주와 뉴질랜드 각각 2.3%, 2.7%의 경제 성장 전망

< ASEAN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2020(F)
싱가포르	3.9	2.9	3.0	3.7	3.1	0.5	1.0
베트남	6.0	6.7	6.2	6.8	7.1	6.5	6.5
인도네시아	5.0	4.9	5.0	5.1	5.2	5.0	5.1
태국	1.0	3.1	3.4	4.0	4.1	2.9	3.0
말레이시아	6.0	5.0	4.4	5.7	4.7	4.5	4.4
필리핀	6.1	6.1	6.9	6.7	6.2	5.7	6.2

< 대양주 주요국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2020(F)
호주	2.6	2.5	2.8	2.4	2.7	1.7	2.3
뉴질랜드	3.1	4.0	4.2	2.6	2.8	2.5	2.7

* 자료: IMF('19.10월)

□ (ASEAN)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통상 협력 확대를 통한 하방 리스크 대응

- (정책) '18~'19년 ASEAN 주요국 대선 결과, 기존 집권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 (인니) 중장기 개발계획(RPJMN 2020~2024)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및 기업여건 개선 등 추진
 - (베트남) '30년까지의 국가 산업발전정책(18.3월 발표)기반 정보통신, 친환경 에너지, 국방, 전자, 부품 및 소재 분야 육성 추진
 - (태국) 신산업 육성 위한 '태국 4.0' 추진과 경제회랑 개발 주력
 - (필리핀) '19.5월 중간선거 종료 후 'Build Build Build' 정책 재개,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 분야 다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통상) 양자·다자 통상협력 확대를 통한 대외 불확실성 완화 시도
 - CPTPP('18.12월 발효)·RCEP('19.11월 협정문 타결)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가별 양자 FTA 협상 추진에 따른 교역 여건 개선 기대
- * 베트남-EU FTA('20년 발효 예상), 태국-EU FTA('20년 타결 예상) 등

□ (대양주) 성장 둔화 타개책으로 인프라 개발 및 혁신산업 육성에 주력

- (정책)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호주) '19~'20년 1,000억 호주달러를 인프라 부문에 배정, 교통·물류 시스템 효율화 및 도심 지역 인구 증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도로·철도·신규 공항 등 다수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뉴질랜드) 만성적인 오클랜드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전개(2028년 목표)

나. 2020년 수출환경

□ (ASEAN) 주요국 산업 경기 회복세 기대

-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변화가 '20년 수출 향방을 결정
 -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둔화, 브렉시트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며, 전개 방향에 따라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중국산 수출품 단가 하락이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
- ASEAN 중 주요 수출시장(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수출여건 변화
 - ASEAN 회원국 중 베트남(50.1%), 싱가포르(13.8%), 말련(9.4%)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對ASEAN 전체 수출의 약 73.3% 차지
 - (베트남) 한국 진출 기업의 현지 생산 계획에 따라 산업재·중간재 수입 수요의 향방 결정
 - (싱가포르) 수출 주력 품목에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심화되나, 중국·대만계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진출 및 현지 양산이 확대될 전망
 - (말레이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와 산업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철강, 전자, 기계류 등 한국산 중간재 수요 증가 기대

□ (대양주) 인프라, 에너지 분야 진출 기회 확대되나, 특정 품목의 수입규제는 강화될 전망

-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비, 관련 자재 수입 수요 증가 기대
 - 호주·뉴질랜드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기계류, 관련 자재, 건축 기술, 전문 인력 수요 증가 예상
-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확대 전망
 -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수소에너지·태양광 분야 발주 확대 전망
- 호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급증하는 추세로, 철강·제지·플라스틱·전자기기·식품 등이 주요 과세품목에 해당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① ASEAN

□ (소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제조업 육성 정책, FDI 투자유치 노력, 말련·필리핀 인프라 사업 재개로 기계 수요 확대 전망
자동차 (741)	소폭증가 (3~10%)	○ 필리핀·말련과의 양자간 FTA 체결, RCEP 협정문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 수혜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한국기업 신제품 출시 효과로 수요 지속 확대 ○ 주요국 전자부품 현지화율 제고 노력으로 증가폭 제한 전망 * 인니 국산제품 사용요건(TKDN) 시행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반도체 경기 회복, 5G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예상되나, 역내 생산품 및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추세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태국 전기차 육성정책, 베트남 빈패스트(VinFast) 생산 등으로 완성차 시장 성장 추세 ○ 완성차 생산거점 발달, 애프터마켓 수요로 부품 수출 확대 전망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건설 시장 호황에 따른 원자재·중간재 수입수요 확대 전망

□ (현상유지)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 유지 (0~3%)	○ TV, 스마트폰 제조로 한국산 디스플레이 수요 지속되나, 중국·인니·태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 (소폭감소)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 생산설비 증설, 바이오연료 비중 확대로 수입수요 감소 * 인니 B30 바이오디젤 제도 시행

② 대양주

□ (대폭증가) 무선통신기기 (소폭증가) 일반기계, 반도체, 가전,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대폭증가 (10% 이상)	○ 중국·대만 중저가 브랜드(화웨이, HTC 등) 영향력이 미미하여, 한국산 스마트폰 신제품이 수입수요 견인할 전망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인프라 산업 활성화 및 광산업 회복으로 건설·광업 분야 기계류 수입수요 증가 기대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메모리 분야 수요 확대 및 반도체 단가 회복으로 수출 증가 예상되나, 시장 경쟁 심화로 수출 소폭 증가 전망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주력 수출 품목(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판매 실적 호조 전망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 정제시설 노후화에 따른 정제설비 폐쇄 및 석유제품 생산 감소로 수입 수요 확대 전망

□ (현상유지)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742)	현상 유지 (0~3%)	○ 애프터마켓 수요로 부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나, 호주 자동차 제조기업 철수에 따른 Genuine 부품 수요 부진으로 증가세 상쇄 전망

□ (소폭감소) 자동차,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소폭감소 (0~-10%)	○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신차 수요 감소될 전망이며, 일본·유럽산 제품 선호 추세가 지속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 인프라 산업 활기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규제 등 현지 철강 기업 보호 기조 지속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동남아 생산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한국산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전망

 인 도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8.1%	2019년	153억(2.8%)																					
		2020년(F)	165억(3.0%)																					
기업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 등 모디 정부의 親기업 정책 및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20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며 수출은 전년대비 상승 전망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인도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5</td> <td>120</td> <td>-5.9</td> </tr> <tr> <td>2016</td> <td>116</td> <td>-3.6</td> </tr> <tr> <td>2017</td> <td>151</td> <td>29.8</td> </tr> <tr> <td>2018</td> <td>156</td> <td>3.7</td> </tr> <tr> <td>2019</td> <td>153</td> <td>-2.1</td> </tr> <tr> <td>2020</td> <td>165</td> <td>8.1</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5	120	-5.9	2016	116	-3.6	2017	151	29.8	2018	156	3.7	2019	153	-2.1	2020	165	8.1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5	120	-5.9																						
2016	116	-3.6																						
2017	151	29.8																						
2018	156	3.7																						
2019	153	-2.1																						
2020	165	8.1																						
▶ 호조품목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 부진품목 석유류, 컴퓨터																								

가. 2020년 시장여건

□ 투자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인도 경제성장률은 6.2%~7.5% 전망

* 인도 '20년 GDP 전망 : IMF 7.0%, OECD 6.2%, World Bank 7.5%

- (정책) 모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 유치 노력 등 친기업 정책 지속 추진
 - 법인세 감면, 정책금리 인하, 전기차·법인차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2조 800억 달러 기록 (세계 7위)
 - * '18년 M&A 규모 937억 달러(+52%)로, 이 중 글로벌 기업 규모는 395억 달러 차지 (중국 기업 대상 M&A 328억 달러 대비 20.0%이상 높음) (Dealogic, 2019)
- (투자) '19.3월, 2020년까지 FDI 유치 목표를 1,000억 달러로 설정, 다양한 유인 정책 발표
 - * '15년 이후 FDI 유입액은 연 400억 달러 수준 유지(UNCTAD)
- (사업환경) 세계은행, 사업용이성 평가*(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인도 63위로 선정, '18년 규제개혁 성과를 보인 국가 4위로 선정
 - * ('17)130위 → ('18)100위 → ('19)77위 → ('20)63위 (세계은행)

나. 2020년 수출환경

□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입대체 노력

- (RCEP) 韓·中·ASEAN 10개국·인도 등 16개국이 추진해온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인도 미참여 결정('19.11월)
 - * 인도 수출입 업계는 RCEP 불참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 (수입규제) 주력산업(화학·철강·섬유 등)에 관련 조치 집중
 - *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 ('10~18년 누계기준) 57건
- (정책) 기존 정책(Make in India 등)의 확대를 통해 육성 산업 중심의 기본관세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수입대체 노력 지속
 - * 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수입 완전 대체 등 목표

□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일부 산업 수요 증가 기대

- 도로·철도 증설, 배전망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 추진
 - * '19-'20년 회계연도 기준, 5년 간 약 1조 5천억 달러 예산 책정
- 자체 생산 장려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품목 포함 주요 부품(화학·섬유·철강) 관세 인하
 - * 단, 전기전자·화학·철강·자동차 관련 완제품 관세는 인상

□ FTA를 활용한 교역량 변동 대비 필요

- 한-인도 CEPA 개정협상 타결 시 교역량 증가 전망
 -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이 8차('19.6)까지 완료된 가운데, 향후 양허 확대 및 원산지 기준 완화 시, CEPA 및 아세안 FTA를 활용한 역내 수출 증가 기대
 - 현재 CEPA 활용률*은 전체 FTA 평균 대비 저조
 - * 한-인도 : (수출) 67.5%, (수입) 61.5% / 전체 : (수출) 70%, (수입) 74%
- RCEP 참여 가능성은 미미하나, 타결 시 인도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며, 인도 내 한국 제조기업 타국 수출 시 RCEP 활용 가능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반도체, 자동차부품 (소폭증가)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개 스마트시티 건설, 산업회랑 개발,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전망 ○ 한국기업 현지공장 설립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단가 상승 및 '20년 5G 상용화 예정으로 수출 물량 증가 전망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SUV 판매 호조 및 신차 출시 예정에 따른 부품 조달 확대에 수출 증가 전망 * '19.10월 기준 약 6만대의 예약 구매 수 달성
철강제품 (61)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 인도정부, '30~'31년까지 1인당 철강 소비량 확대 계획 발표 (61kg→160kg)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통신업계의 5G 시범운영 및 지원 기기 제작에 따른 수요 증가 (정부, '20년 이내 5G 전파 승인 목표) * 5G 관련 시장 규모 '20년까지 300억 달러 전망 (Communications Today Magazine)

□ (현상유지)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관용차로 선정)으로 수출 전망 밝으나, 완성차 수입에 대해 100% 관세 적용으로 수출 유지 전망 * K사 '21년까지 콤팩트형 전기자동차 독점 판매 예정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월 LCD, LED TV 패널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로 수입의존도 높은 오픈셀 LED 패널 수입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나, TV 판매증가량은 미미한 추세

□ (소폭감소) 섬유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대폭감소 (-1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성비 좋은 중국·베트남 섬유 수입량이 내수 수요를 초과하며 한국산 섬유 수출 지속 감소 전망 ○ 섬유산업에 대한 22건의 반덤핑 조치로 수입규제 시행

 중 동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3.1%	2019년	177억(3.3%)
2020년(F)		182억(3.3%)	

지정학적 리스크 속,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관광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전망**



▶ **호조품목**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 **부진품목** 평판디스플레이, 석유제품

가. 2020년 시장여건

□ 지정학적 리스크 속 경제성장률은 '19년 0.1% → '20년 2.7% 상승 전망

- POST-OIL시대를 대비한 국가비전* 제시 및 非석유부분 투자 확대
 - 제조업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 * 사우디 비전 2030, 터키 비전 2023, 이집트 지속가능발전 2030
-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보호주의 강화
 - 사우디(IKTVA), UAE(ICV), 쿠웨이트(New Tender Law) 등 현지제품 사용 의무화
 - 외국인 고용 규제 시행에 따른 현지인 고용의무는 기업 부담 가중으로 작용
-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관광 프로젝트 등 '20년 기회요인 다수
 - (엑스포) 중동 최초 개최(192개국 참가, 역대 최대 규모) 계기로, 관광·소비재·서비스업 등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 (관광 프로젝트) 사우디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단지, 홍해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및 관광 산업 육성
- 유가 변동성에 따른 산유국 재정부담 증가 등 불안요인 상존
 - * '20년 유가는 \$60/배럴 내외로, '19년 대비 소폭 하락 전망

나. 2020년 수출환경

□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강화와 원화 결제시스템 중단

- '20년 美 대선까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방위 경제제재 지속 전망
- 원화결제시스템 중단으로 이란 수출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태 장기화 시 거래 불가로 한국 진출기업의 추가 철수 우려
 - * 이란 내 한국진출기업은 제재 직후('18.8월) 28개 → '19.11월 5개사만 잔류

□ 중동 프로젝트 시장 회복에 따른 기자재 수출 확대 예상

- 유가 하락으로 경기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나, 민생·인프라·석유 가스 관련 프로젝트 발주는 확대 전망
 - * 이라크 재건, 카타르 LNG 트레인/육상설비, 사우디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
-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에 따른 주력 수출 품목(기자재 등) 동반 성장 기대
 - * 對중동 수출은 '14년 정점으로 프로젝트 수주 감소에 따른 동반 감소 추세

□ 두바이 엑스포, 사우디 비자발급 완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두바이 대형 상업시설 개점, 마케팅 이벤트 등을 공략한 소비재 진출 확대 예상
- 사우디 관광·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로 건축 기자재 및 스포츠 시설 관련 품목 진출 기회 확대

□ 소비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 젊은 인구층과 높은 출산률로 소비재 및 온라인 시장 규모 확대될 전망
 - * 소비재 시장규모(연평균 6.1%) : ('19) 1.4조 달러 → ('21) 1.6조 달러
 - * 온라인 시장규모 : ('19) 285억 달러 → ('22) 440억 달러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비전 2030에 따른 국영 석유사 ADNOC의 장기 선대확충 계획으로 LNG-LPG 등 신규수요 발생 전망 ○ 한국기업 LNG 선박엔진 유지·보수 장기계약 체결 * STX엔진LNG 25척 엔진 유지보수 5년 계약 체결(39백만 달러 규모)
일반기계 (71,72,75,79)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기업공개(IPO) 이후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따른 기계 수요 증가 예상 * 사우디 오일가스 프로젝트 ('19년) \$258억 → ('20년)\$377억 (Meed)
철강제품 (61)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람코 및 전력청 프로젝트 발주 재개로 수요 지속 * 한국기업 H사 Marjan 프로젝트(약 27억 달러)수주 및 S사 가스 저장 프로젝트 초기업무 계약체결('19.11월)로 기자재 수출 확대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AS제품 수요 확대 전망 ○ GCC 중심의 차량 보유기간 연장으로 부품 수요 증가

□ (현상유지) 자동차,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소형 SUV 라인업 중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현지 생산 확대로 수출은 현상 유지 전망
가전 (82)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이스라엘 FTA 체결, GCC 부가가치세 영향 둔화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 및 프리미엄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對이란제재 지속 및 원화결제 불가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

□ (소폭감소)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생산 증가, 이집트 석유 일일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일일 190만 배럴)하며 수입 제한

 중남미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1.1%	2019년	263억(4.9%)																					
		2020년(F)	266억(4.8%)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 연금개혁, 경기 부양 재정확대 정책으로 성장 기대되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상존으로 우리기업 수출 증가율은 1.1%에 그칠 전망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5</td> <td>307</td> <td>-14.5</td> </tr> <tr> <td>2016</td> <td>254</td> <td>-17.1</td> </tr> <tr> <td>2017</td> <td>281</td> <td>10.4</td> </tr> <tr> <td>2018</td> <td>278</td> <td>-1.0</td> </tr> <tr> <td>2019</td> <td>263</td> <td>-5.5</td> </tr> <tr> <td>2020</td> <td>266</td> <td>1.1</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5	307	-14.5	2016	254	-17.1	2017	281	10.4	2018	278	-1.0	2019	263	-5.5	2020	266	1.1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5	307	-14.5																						
2016	254	-17.1																						
2017	281	10.4																						
2018	278	-1.0																						
2019	263	-5.5																						
2020	266	1.1																						
▶ 호조품목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 부진품목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컴퓨터, 섬유류, 철강제품																								

가. 2020년 시장여건

□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으로 1.8% 성장 전망

- (소비) 중산층 확대, 최저임금 인상, 실업기금 인출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경기 부양으로 내수 증진 기대
 - * (브라질) 정부는 1억600만 근로자에게 실업기금 인출을 허용함에 따라 가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멕시코) '19년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 소비자 신뢰도 개선, 송금 유입 증가 등이 가계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
- (투자) '20년 USMCA 발효 및 브라질의 연금개혁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 확보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될 전망
 - * 멕시코 경제부는 USMCA 발효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현재 정체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현지 언론사 El Milenio, '19.8.28)
 - * 브라질 중앙은행은 '18년 590억달러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19년 770억달러, '20년 8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Investimentosenoticias, '19.11.25)
- (수출) 국제 교역량 감소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반 하락 및 원자재 가격 하향세로 인해 수출은 현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리스크) 주요국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 (멕시코) 약 100년만의 정권 교체로 집권한 AMLO 정부의 정책이 기존 정책과 충돌하면서 투자자 신뢰 상실
 - * 전임 정부의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공정율 약 30%)를 전격 취소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 멕시코 환율 급상승 및 주가지수 급락의 원인이 됨
 -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자로 알려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19.10.27)되어 외환 송금규제, 자국 생산품목 수입불가 등 폐쇄적인 통상·무역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
 - * 과거 정책으로 복귀할 경우, 브라질 주도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메르코수르에 영향을 미쳐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음
 - (칠레) 공공요금 인상, 높은 생활물가로 촉발된 '지하철 요금인상 반대시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 * 노인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 의료비 지원 확대, 전기 요금 안정화 등
 - (에콰도르) IMF가 요구한 긴축 정책 이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대립 가능성
 - * IMF 4대 요구사항 : ① 공공부문 인력축소(최대 14만명의 직원 급여 삭감 또는 해고), ② 보조금 삭감을 통한 에너지 가격 인상, ③ VAT 인상 및 VAT 면세 혜택 폐지, ④ 노동시장 규제완화 및 공공기관 민영화 등

□ 중남미 국가들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진출 기회 증대

- 현재 협상중인 FTA 타결시 중남미 전체와 FTA 네트워크 구축
 - (협상 중 : 한-메르코수르 TA) 중남미 최대의 경제블록인 메르코수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20년에 마무리하겠다고 언급
 -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자격 정지 상태),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로, 남미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2%(2.7조달러) 차지
 - (협상 중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태평양동맹과의 FTA를 의미하며, 멕시코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 기대
 - * '18년 기준, 태평양동맹의 GDP는 2.07조달러, 인구는 2.3억명이며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
 - (발효대기 중 : 한-중미 FTA)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과 FTA를 체결해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 '19.10월 기준, 니카라과, 온두라스와는 발효, 타 국가는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중

나. 2020년 수출환경

□ 중남미 경제성장 국면 돌입

- 중남미 경제를 주도하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對중남미 수출도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
 - (멕시코) USMCA 발효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및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확대로 북미시장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브라질) 연금 개혁 성공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확대

□ 중산층 내수시장 확대 및 높은 소비성향

- 중산층 증가에 따른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 '18년 기준, 중남미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의 6.4%만을 저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높은 소비성향을 보임
 - *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의 약 24%를 저축하는 것으로 분석됨
-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변화

□ FTA 발효로 인한 중미 수출 증가 기대

- '19.10월부터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와 FTA가 발효됐으며,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는 자국 내 비준 준비 중으로 '20년 발효 예상
 -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므로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 기대

□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 K-POP으로 시작된 한류가 한국 제품(특히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소폭증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USMCA 비준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 전망(AMDM) ○ 브라질 기준금리 사상 최저수준(5%)으로 기계 구매 등 설비투자 확대 전망(Infomoney)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5G 상용화 계획에 따른 수출 확대 전망 ○ '20년 멕시코 광섬유망 프로젝트 추진으로 통신 장비 수요 증가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회복, 브라질 정부의 'Rota 2030' 발효로 관련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Rota 2030 : 브라질 자동차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지역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 기술 부족으로 정제유 및 윤활유 수입 추세 ○ 한국 기업 H사, '19년 멕시코 PMI사에 휘발유 210만 배럴 공급, 향후 장기 계약 체결 가능성

□ (소폭감소)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제품, 석유류,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원산지 규정 강화(역내 생산 부품 비중62.5%→75%)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 수입 감소 ○ 중국·일본 완성차와의 경쟁 심화로 수출 소폭 감소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TPP 발효로 인한 베트남·말련 저가 수입품 증가로, 한국산 제품 수입수요 감소 전망 * CPTPP발효 이후('19.1-8월) 말련 '송비'제품 +11% 증가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자동차용 철강 제품 수요 소폭 감소 전망
석유류 (4)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석유 관련 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 및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 예상 * 멕시코 FTAD체결국에 석유 관세 부과 및 최저가격고시제도 적용(~24.8.31)
가전 (82)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가격경쟁 및 한국기업 현지 생산 증대로 완제품 수입 감소 전망

 CIS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2.9%	2019년	135억(2.5%)
		2020년(F)	139억(2.5%)
서방의 對러 제재 지속, 유가 하락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자국산화 적극 추진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 기대되어 對CIS 수출은 소폭 증가 예상			
▶ 호조품목 선박류,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 부진품목 자동차, 석유류			

가. 2020년 시장여건

□ 對러 제재 침체 딛고 3.8%성장 (러 : 1.9%, 스타국 : 4.5%)

- (정책) 對러 경제제재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및 수입환경 악화로, 자국 내 제조업 육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개발펀드(Industry Development Fund)를 조성, 러시아 산업의 현대화, 신규산업 개발, 국산화 확대 프로그램 지원

< CIS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주요 사항) >

- (러시아) 2022년까지 수입대체화 20개 중점 산업 100% 국산화 추진
- (카자흐스탄) 2050년 국가개발 정책수립, 중점육성 7대 산업(건설장비, 운송장비, 농업 및 석유산업) 선정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국 전개
- (우즈베키스탄) 2030년까지 국가 산업생산량 1.5배, 2024년까지 자동차 생산량 22만→35만대, 자동차 부품 국산화율 60%까지 확대 목표

- (경제제재) ‘14년부터 시작된 對러 경제제재는 ‘20년까지 연장되며, 상대적으로 도입 초기 대비 효력은 반감될 전망
 - *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국 기업 거래에 의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강조

나. 2020년 수출환경

□ 러 정부 수입대체화 우선 적용 산업 20개 분야 선정, 국산화 적극 추진

- 수입대체화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및 노하우 전수가 필요한 시점으로, 아시아 파트너 매칭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러시아 수입대체화 산업 중 한-러 우선 협력분야(음영표시) >

부문	개수	부문	개수
소비재	31	철금속	15
항공 산업	408	비철금속	14
목재 산업	34	제약 산업	601
화학 산업	35	의료기기 산업	111
방사 전자 산업	534	중공업 기계 건설	47
운송 기계 건설	19	동력 기계 건설	45
자동차 산업	67	석유 및 가스 기계 건설	43
농업 및 임업 기계 건설	51	공작기계 제작	61
식품 가공 기계 건설	15	조선	107
도로/시립 비행장 건설 기계	15	재래식 무기	2

* 자료원 :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산업 설비 수요 증가

-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① 금융지원, ② 공공조달 특혜, ③ 역내 관세 특혜 지원 중으로, 외국 기업에도 진출 기회 및 혜택 확대 전망

* (러시아) 산업개발 펀드 신설, (카자흐스탄) 2050전략, (우즈베키스탄) 국가개발전략

- 특히, 러시아 정부는 '30년까지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R&D에 653억 루블 투자 예정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 완제품 수출에 탈피해 기술제휴, 현지조립 및 생산을 통한 Made with CIS 전략 필요

□ 경제 디지털화를 공식 목표로, 디지털 경제 구축 추진

- 러시아 'Digital Economy' 프로그램 구체화('18.12월), 카자흐스탄은 'Digital Kazakhstan', 'Smart City 2.0' 등 정부 주도 프로그램 시행

* 우선협력분야: (한-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 인프라, 블록체인 및 보안기술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 이상)	○ 한국 기업 D사, 쇠빙 LNG선 5척 이양 전망 * '14년 쇠빙 LNG운반선 15척 수주, 그 중 10척 인도 완료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러시아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설비 수요 확대로 수출 소폭 증가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산업자본투자 5년 간 지속 증가 추세로, '20년 건설경기 호황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철강 수요 확대 전망(러시아 경제개발부) ○ 카자흐스탄 물류·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누를리 줄로 철강 수요 확산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한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중소형 차량 현지 생산 증가로 관련 부품(SKD, CKD) 수요 증가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20년 5G 상용화에 따른 성장세 기대 * 모스크바에서 주요 통신사들이 사전테스트 진행 중

□ (현상유지)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유지 (0~3%)	○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나, 한국 제품의 높은 품질·가격경쟁력으로 수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
가전 (82)	현상유지 (0~3%)	○ 첨단 소형 가전·혁신 기술 제품(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등) 소비 추세 유지 전망 * 스마트워치 브랜드 순위 : (1위) 애플, (2위) 삼성, (3위) Garmin

□ (소폭감소) 자동차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소폭감소 (0~-10%)	○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 자국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현지 생산량 증가로 완성차 대외 수입 소폭 감소 전망 * '자동차산업 2025 전략'으로 수입대체·국산화율 확대 추진

 아프리카	2020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6.4%	2019년	64억(1.2%)
		2020년(F)	68억(1.2%)
원자재 가격회복, 중산층 중심의 민간 소비증가, 생산성 증대, FDI 확대, 산업다각화 지속 등으로 SSA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6.4% 증가 전망			
▶ 호조품목 선박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 부진품목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섬유류			

가. 2020년 시장여건

□ 생산성 및 소득수준 증가로 '20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6% 성장 전망

- 원자재 가격회복,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 증가, 농업 및 광업 생산성 증대로 완만한 경제성장 달성 전망
 - * 단, 역내 최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의 경제성장 부진은 위협 요인으로 상존
- (투자) '18년 전세계 FDI가 13% 감소한 반면, 對아프리카 FDI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459억 달러 기록하며 지속 확대될 전망
 -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이 투자 확대 주요인이며, 총 237개 운영 중(UNCTAD)
- (산업) 자원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다각화 지속 추진
 - (제조) 산업다각화 정책에 따른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 (인프라) 도로, 철도, 항만, 전력개발 등 인프라 확충 수요 지속
 - (ICT) 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터넷·모바일 사용률 급증 추세
 - (의료) '23년까지 연평균 10.6% 최대 성장률 달성 전망(BMI)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2020(F)
성장률	5.1	3.1	1.4	3.0	3.2	3.2	3.6

* 자료: IMF('19.10월)

나. 2020년 수출환경

- AfCFTA(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공식출범에 따른 교역·투자 증가 전망
 - AfCFTA 발효 시 '22년까지 역내 교역은 '10년 대비 52.3%, FDI 또한 상당부분 증가할 전망(UNECA)
 - * 총 12억 인구, GDP 2조 달러 이상 규모의 55개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 예상 ('19.5월 공식 출범, '20.7월 관련 조치 이행 예정)

- 글로벌 경기 개선,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인프라·에너지 확충 지속
 - 인프라·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건설·기계 수입수요 증가 전망
 - * 다만, 유럽 및 중국 제품 점유율이 높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 블랙다이아몬드 세대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소비재 증가 예상
 -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팽창 중에 있어 프리미엄 소비재(화장품, 전자제품 등) 시장 확대 전망
 - * 온라인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 : ('13) 80억 달러 → ('18) 500억 달러(연평균 63% 성장)

- 해외 제조 확대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감소 전망
 -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가전제품 생산기지가 동유럽·동남아로 이전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 물량은 감소할 전망

- 아프리카 시장 관심 증대로, 경쟁 심화 예상
 -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교역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 중동국가의 관심 증대로 시장 내 경쟁 심화 우려
 - 특히, 고품질의 미국·유럽 제품과 중국·인도 저가제품의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 예상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8년 화물선 수주량 지속 확대에 이어 향후 2~3년 간 선박 수출량 증가세 유지 전망 ○ 모잠비크 LNG선박(15~20척) 수주 가능성(Anadarko)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 현지 조립 생산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수요 지속될 전망(Reuters) ○ 높은 중고차 수요로 A/S 관련 부품 시장 확대 전망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수입 품목 중 하나로 수입수요가 꾸준하나, 주된 수입원은 중동·유럽으로 한국 수출 소폭 증가 전망 * SSA 수입품목 중 광물성 연료(HS27) 수입비중 43%

□ (현상유지) 일반기계, 철강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및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기계류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고품질 유럽산과 저렴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수출은 현 수준 유지 예상
철강제품 (61)	현상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건설·제조업 소요 철강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저가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로 한국산 수요 현상 유지 전망 * 중국산 20% 점유(3년간 최대 수출국 지위 유지, ITC)

□ (소폭감소) 섬유류,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나, 저렴한 중국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및 현지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한국산 수입수요는 감소할 전망
자동차 (74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조업체 공장 해외 이전 및 완성차 현지 조립 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감소 전망

작 성 자

-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 중국지역본부 오정훈
- 유럽지역본부 윤유현
- 일본지역본부 최형권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한경준
- 서남아지역본부 최명례
- 중동지역본부 강은호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CIS지역본부 홍승아
- 아프리카지역본부 이종민
- 무역분석팀 송민주

Global Trade Report 19-014

2020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분석팀
(02-3460-7596)
I S B N | 979-11-6490-114-2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